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the Rural Housing Standard Plans

이을규* 장택주** 주우일***
Lee Eul-Gyu* Jang Taek-Ju** Joo Woo-Il***

Abstract

This research is according to the a future-oriented strategy, low-carbon green growth, and it is a basic research for dissemination of rural housing standard plan. Through the survey of plans use, we look at ways to rural housing standard plan use and then needed to establish measures for this.

Looking at the type of used plans, we can find several points. One of them, 19 kinds of rural housing standard plans were used among the 61 total cases. Almost all change the plan, the reasons is different for the condition of the land, such as site conditions, family members, personal preferences, house color or material. A few cases have been constructed as rural housing standard plans, but rural housing standard plans are important data for the rural resident to determine plans, and it has an important role in the rural housing design process.

Common features of the many rural houses is concrete structure, two stories, and construction period is two to three months. Land area is 300m² to 600m², building area is 71m²-110m². Heating system is an oil boiler.

키워드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표준설계도, 농어촌주택 실태조사,
Keywords : Rural Housing Standard Plans, Standard Plans, Survey of Plans Us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인해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대응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야 함은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폐해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우려속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전략에 대응한 연구로써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보급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에 농어촌 표준설계도의 활용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수요 및 이용실태, 향후 활용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이용실태 파악 후 앞으로 표준도 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촌표준설계도 열람 및 활용수요의 통계가 없어 실제로 표준도를 활용하여 구축된 건축물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 실제로 표준도를 활용하여 구축된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고, 현 표준도 이용실태 파악 후 향후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주거방식 및 거주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필요한 농어촌표준설계도 개발의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미 개발·보급된 표준도의 적절한 이용과 입주민 주거개선을 위해서는 입주민 거주실태 및 활용실태의 총체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농어촌 주민에게는 소형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계사무소에 설계비를 지불하면서 소형주택을 시공하기에는 설계비의 부담이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질 좋고 설계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농어촌표준설계도는 농어민에게는 효용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래서 농어촌주택표준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며, 이외에도 앞으로 필요한 저에너지형 친환경주택타입과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한 농어촌 미래주택 표준설계도 국가적 과제로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다. 이에 이제까지 보급된 표준설계도에 대한 평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본 연구의 의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농어촌실정에 맞는 현대적 설비와 구축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표준설계도 개발이나 기타 많은 과제가 있으나 우선 기 보급된 주택표준도의 평가에 따라서 보완수정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 정희원, 환경대학교 이공대학 건축학부 교수
** 정희원, 전남도립대학 건축인테리어학과 교수
*** 정희원,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교신저자, E-mail : birdok@hknu.ac.kr)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농어촌 표준설계도를 농어촌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려고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농어촌 표준설계도를 이용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어촌 표준설계도를 이용한 건축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농어촌 표준설계도를 이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거주자 이용평가를 조사하는 한편 농어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지 않거나 참고하여 변형하여 건축한 경우는 그 이유와 원인을 밝혀내어 향후 농어촌 표준설계도 개발에 그 원인과 이유가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연구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농어촌 표준설계도의 활용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수요 및 이용실태를 알아보고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에 따른 정책적·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우선 조사는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농어촌주택의 만족도와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농어촌주택 표준도를 그대로 사용한 사례도 있지만 일부 개선하여 사용한 사례도 적지 않아서 농어촌공사에 표준도를 복사해 갔거나 전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상담한 사람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건립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어촌주택 표준도를 이용한 사례를 통하여 현재 농어촌주택 표준도가 일선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 표준도 주택에 거주한 주민들의 평가는 어떤지 분석한다.

1.3 연구의 진행과정

(1) 연구 진행과정

이번 연구진행은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한다. 우선 전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상담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실질적으로 농촌주택을 건립한 사례를 확인하고 건립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분석한다.

그리고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농어촌주택의 현황과 만족도를 통하여 현재 농어촌주택 표준도가 일선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 표준도 주택에 거주한 주민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보급하는 데에 따른 정책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경제적인 주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2) 조사지역

조사지역은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으로 한다.

본 현지조사는 강원도 19개(31.1%)이고, 충청북도 5개(8.2%), 충청남도 5개(8.2%), 전라북도 9개(14.8%), 전라남도

7개(11.5%), 경상북도 5개(8.2%), 경상남도 10개(18.0%) 등 7개 도에서 총 61개 주택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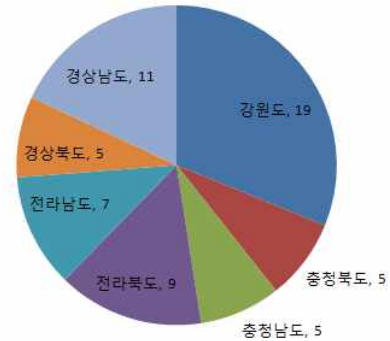


그림 1 도별 조사대상 가구수 분포

(3) 조사내용 및 기간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지자체에 표준설계도 허가신청건수와 농촌공사에 상담자자료를 검토하여 표준설계도 이용현황을 파악한다. 이용현황은 농촌주택표준도로 실제로 집을 시공한 가구만 조사한다.

현장 조사기간은 2010. 10. 19(화) - 2010. 10. 31(일)까지 조사하였다.

2.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실태 현황분석

2.1 입주민 특성

조사대상주택의 그 지역 거주기간 분포를 보면 5년이 하가 5명(8.2%), 5년에서 10년미만 5명(8.2%), 10년에서 15년미만 2명(3.3%), 15년에서 20년미만 1명(1.6%), 20년 이상 29명(47.5%), 무응답이 19명(31.1%)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주택 주민의 연소득수준은 1,000만원미만이 6명(9.8%)이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미만이 11명(18.0%), 2,000만원에서 3,000만원미만이 8명(13.1%), 3,000만원에서 4,000만원미만이 9명(14.8%), 4,000만원에서 5,000만원미만이 3명(4.9%), 5,000만원이상이 1명(1.6%), 무응답이 23명(37.7%)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주택의 가족구성원은 1명이 7가구(11.5%)이고, 2명이 28가구(45.9%), 3명 12가구(19.7%), 4명이 5가구(8.2%), 5명이 7가구(11.5%), 무응답이 2가구(3.3%)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이 농촌지역으로 독신 또는 노부부가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주택의 인터넷사용 여부는 61명 중 33명(54.1%)이 사용하고 있으며, 28명(45.9%)만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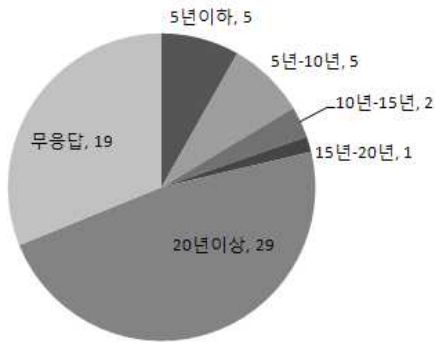


그림 2 거주기간

조사대상주택 주인의 건축동기는 건물노후로 인하여 건축한 경우가 32명(52.5%), 귀농 8명(13.1%), 귀향 4명(9.8%), 단순이사 6명(9.8%)이고, 주거목적으로 6명(9.8%), 건물붕괴 및 화재 등으로 2명(3.3%), 분가 2명(3.3%), 별장사용 1명(1.6%)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중 건축동기는 기존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건축현황 분석

조사대상주택의 설계소요 기간은 농어촌표준설계도서를 곧바로 사용한 가구가 2명(3.3%)이고, 1개월 소요된 가구가 47명(77.0%), 2개월 소요된 가구가 4명(6.6%), 3개월 소요된 가구가 3명(4.9%), 그 밖에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물을 건립하면서 계속해서 변경 수정하여 설계소요시간이 2년이상 소요된 사람도 1명(1.6%), 무응답이 4명(6.6%)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표준주택도서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건축사면허를 가진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을 하는 관계로 설계에서 부터 허가 또는 신고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설계소요시간은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주택의 공사기간은 61명 중 3개월이 18명(29.5%)이고, 2개월이 14명(23.0%)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건물이 규모가 작은 관계로 착공하여 3개월 전후에서 준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밖에 급전적인 문제, 공사의 난이도, 개인적인 취향 등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주택의 건물 준공연도는 61명 중 2009년이 44명(72.1%)이고, 2008년이 8명(13.1%)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이 근년에 집중된 것은 조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표준설계도서 상담 및 조회여부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토대로 사전에 전화면담을 통해 확인을 통해 조사에 임하였기 때문에 근년에 준공된 건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대상 건물 신축과 증개축여부는 모두 신축 건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주택의 부지면적이 300㎡이하가 10개(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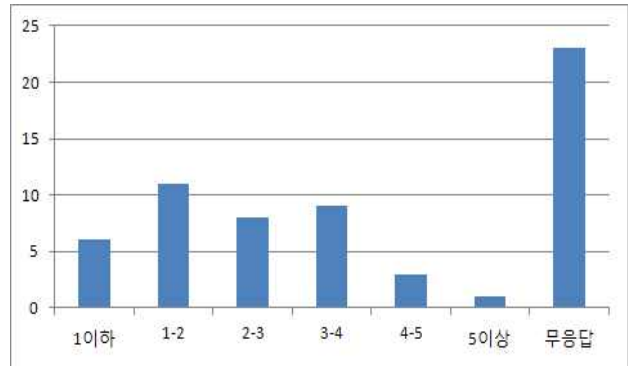


그림 3 조사대상주택 연소득 (단위 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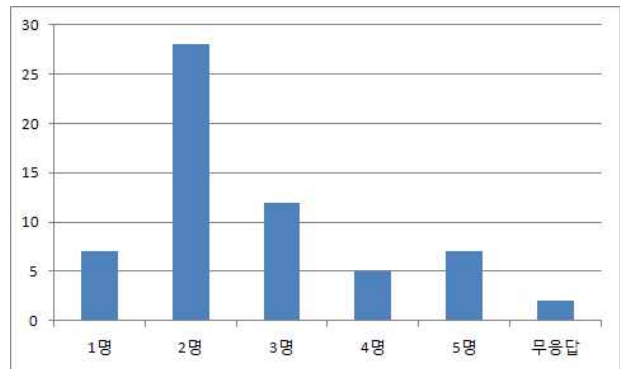


그림 4 가족구성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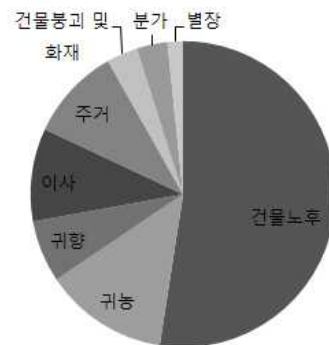


그림 5 농어촌주택 건축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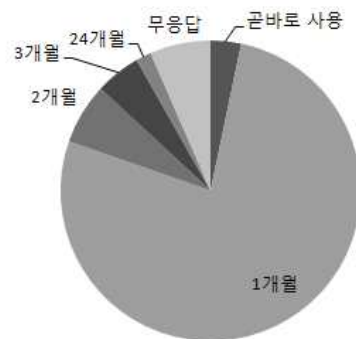


그림 6 설계소요 기간

300㎡~600㎡ 28개(45.9%), 600㎡~900㎡ 11개(18.0%), 900㎡이상이 7개(11.5%), 무응답 5개(8.2%)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대지는 300㎡~600㎡정도 면적에서 건물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주택의 부지경사 특징은 급경사 1개(1.6%), 완경사 7개(11.5%), 평지 53개(86.9%)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부지는 평지에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주택의 건축면적이 70㎡이하 4개(6.6%), 71㎡~90㎡ 18개(29.5%), 91㎡~110㎡ 33개(54.1%), 111㎡~130㎡ 4개(6.6%), 131㎡이상이 2개(3.3%)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건축면적은 전반적으로 110㎡이하로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주택의 건물높이는 지상 1층인 건물이 49개(80.3%)이고, 지상 2층인 건물이 12개(19.7%)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조사대상 건물 중 지하층을 소유한 집은 2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주택의 건물구조는 조적조가 23개(37.7%)이고, 콘크리트조가 9개(14.8%), 판넬조가 7개(11.5%), 목조가 3개(4.9%), 기타 혼합유형이 19개(31.1%)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벽돌에 의한 조적조가 많은 편이며, 기타 혼합유형 중에서 목조에 콘크리트, 조적조에 부분 판넬 등으로 구성된 건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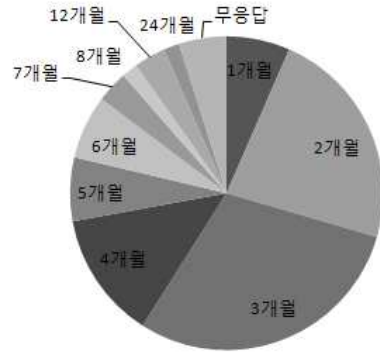


그림 9 농어촌주택 시공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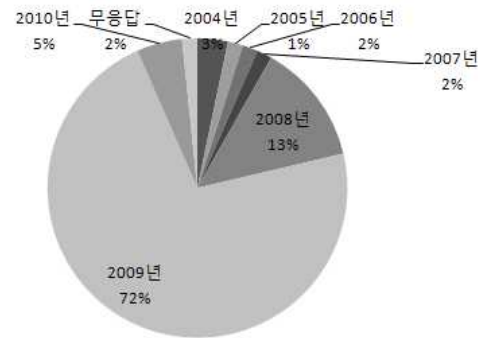


그림 10 조사대상주택 준공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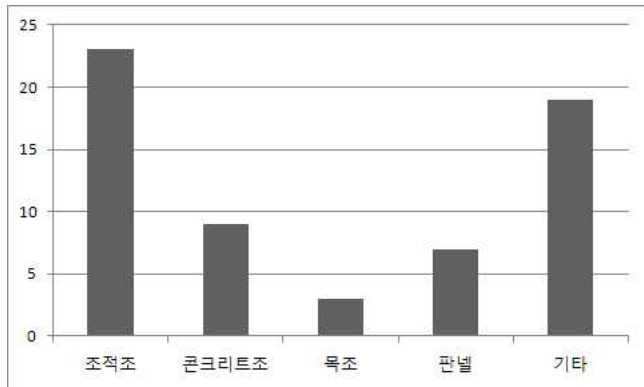


그림 7 건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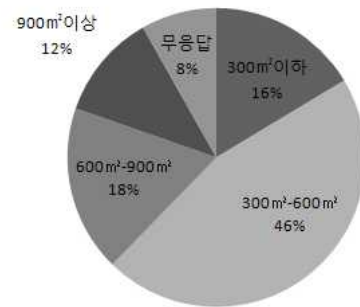


그림 11 부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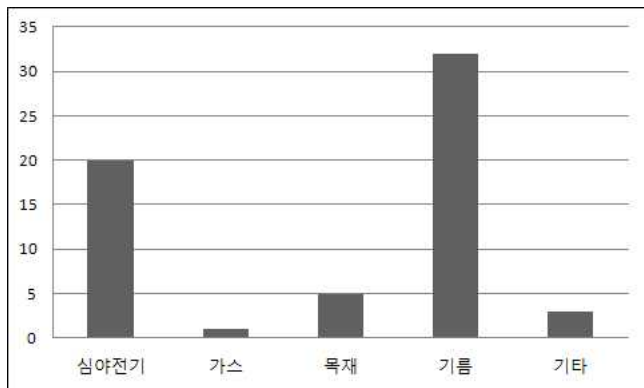


그림 8 농어촌주택 난방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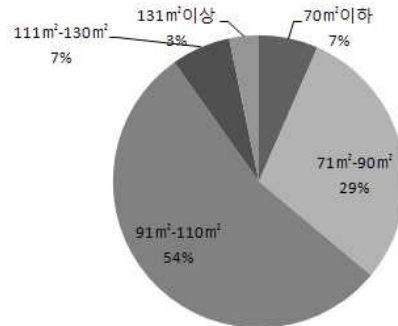


그림 12 건축면적

조사대상주택의 난방시스템은 심야전기가 20개(32.8%)이고, 가스가 1개(1.6%), 목재가 5개(8.2%), 기름이 32개(52.5%), 기타 3개(4.9%)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기름에 의한 난방이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심야전기이용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주택의 수도사용 여부는 지하수 21개(34.4%)이고, 시수가 25개(41.0%), 기타 15개(24.6%)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관정을 뚫어 사용하는 지하수와 시수도가 비슷한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농어촌주택 상수도방식 및 정화조 설치여부

상수도방식	가구수(%)	정화조방식	가구수(%)
지하수	21(34.4)	개별정화조	39(63.9)
시수	25(41.0)	오수정화시설	22(36.1)
기타	15(24.6)		
합계	61(100.0)	합계	61(100.0)

표 2 주택 층높이

높이	가구수(%)
1층	49(80.3%)
2층	12(19.7%)
합계	61(100.0)

조사대상주택의 정화조 사용여부는 개별지하수 21개(63.9%)이고, 오수정화조 설비가 22개(36.1%)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이 정화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공사비 및 관리비

조사대상주택의 총공사비용을 살펴보면, 5,000만원이하가 6개(9.8%)이고, 5,000만원에서 10,000만원미만이 36개(59.0%), 10,000만원에서 15,000만원미만이 10개(16.4%), 15,000만원에서 20,000만원미만이 3개(4.9%), 20,000만원이상이 1개(1.6%), 무응답이 5개(8.2%)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건립비용은 1억내외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주택의 월별유지관리비용을 살펴보면, 10만원 이하가 7개(11.5%)이고, 10만원에서 20만원미만이 12개(19.7%), 20만원에서 30만원미만이 14개(23.0%), 30만원에서 40만원미만이 2개(3.3%), 40만원이상이 1개(1.6%), 무응답이 25개(41.0%)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주택의 월유지관리비용은 30만원미만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표준설계도 수요와 만족도분석

3.1 농어촌주택 수요요인

농어촌에서 취농을 희망하는 예비 취농자를 대상으로 한 2005년의 조사결과²⁾를 보면 예비 취농자의 경우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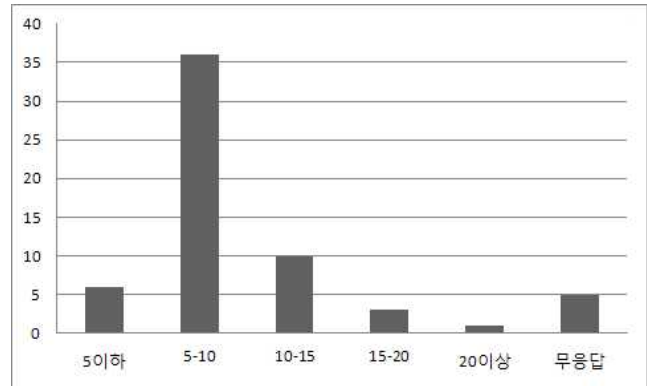


그림 13 농어촌주택 총공사비용 (단위: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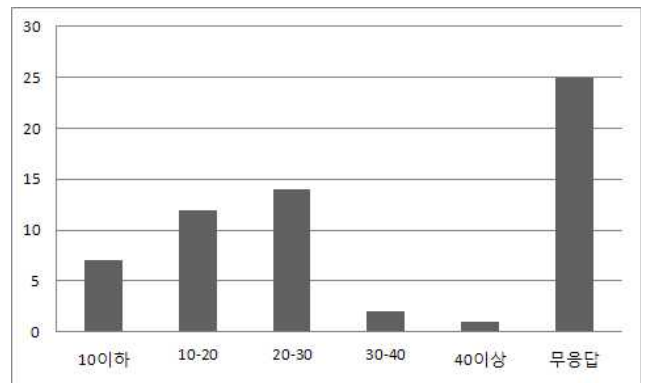


그림 14 월 유지관리비용 (단위:만원)

에서 농촌으로 취농을 하고자 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들이 농어촌주택의 수요자라고 볼 때 농어촌주택 설계 시 원주민들의 생활습관을 반영해야 함과 동시에 도시생활의 습관이 배어있는 수요자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예비 취농자의 연령대는 30대 이후 연령층에 고르고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40대 수요자들의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들 취농자들의 취농 이유는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가 31.9%, 농촌생활이 좋아서가 22.4%, 건강을 위해서가 19.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촌주택이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원주민을 포함하여 농업 생산활동 위주의 공간구성 이외에도 예비 농촌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전원생활, 건강생활, 취미생활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농어촌주택의 실제 가장 큰 수요층은 건물이 노후화된 원주민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젊은 층과 가족이 많은 원주민인데, 이중에는 다문화 가정의 많음을 들 수가 있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 보면³⁾, 2007년 혼인건수는 도시

2) 김정호, 마상진,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착 과제, 20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38~39

3) 박대식, 최경은,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31

(동부)이 19,762건으로 농촌지역(읍·면부)의 8,033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 여자와의 혼인 구성비는 농촌지역(13.5%)이 도시지역(7.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7,930명중 40.0%에 해당하는 3,172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1.0 감소한 것이다. 농촌지역의 혼인 남자중 10.0%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그중 44.5%가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다. 2008년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5월에 실시한 지자체별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계해 보았다 (표 4-1 참조). 조사결과가 시·군 단위로 되어 있어 도농복합시의 농촌 인구 비율을 35% 정도로 추정되어 계산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 수는 군 지역(86군) 17,294명, 도농복합시 지역(54시) 10,946명으로 총 28,24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 2002년 이후 귀농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농어촌으로의 전입이 전출을 역전시키기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지속적인 농어촌인구의 유입으로 기존의 노후화된 주택 이외에 또 다른 형태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귀농인구의 연령대를 보면 전체 귀농농가 중 30대, 40대의 귀농농가 순으로 그 수가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2002년까지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2003년에는 40대 귀농농가의 수가 30대 귀농농가의 수를 넘어섰고 2004년에는 다시 50대의 귀농농가의 수가 30대와 40대 귀농농가의 수를 2배 이상 넘어섰다는 점이다. 1990년 이후로 30대의 젊은 층의 귀농농가 비율이 IMF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갈 무렵인 1999년까지 가장 많게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귀농농가의 연령층이 40~50대 이상의 연령층으로 급격히 변화된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앞서 밝혔듯이 전원생활, 주말주택, 생활가치추구, 실버수요 증대 등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농촌인구 감소가 이어져 농촌인구 비율은 1985년에 34.3%, 2005년에 18.5%, 2020년에는 13.3%로 감소한다.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점점 높아져 1985년에 9%, 2005년에 18.6%, 2020년에 22.8%로 높아져서 농촌의 고령화 현상은 도시보다 약 15-20년 빠르게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어촌주택수는 581,227가구(2005년 통계)에 달한다. 이중 농어촌의 노후주택 비율은 도시의 2.5배에 달한다. 1985년 이전에 지어진 농촌의 주택 수는 919,928호로 전체 주택의 약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농어촌 주택은 다시 건축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이들이 잠재적인 농촌주택 표준도의 수요층이 되리라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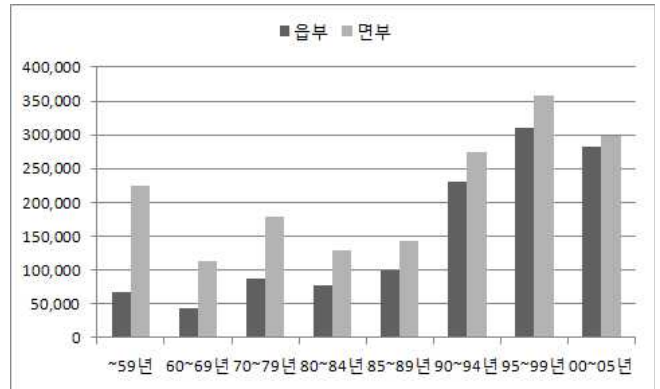


그림 15 농어촌지역 가구수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표 4 농어촌주택 노후화 현황

구분	내용
주택건축 경과연수	5년이하(26%), 10년이하(19.2%), 50년이하(40.4%), 51년이상(14.4%)
화장실 유형	재래식(36.2%), 옥내 수세식(46.7%), 옥외 개량·수세식(17.2%)
목욕탕 유형	온수 목욕탕(55.2%), 없음·기타(44.8%)
부엌 유형	재래식(24.8%), 입식(75.2%)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처 : 농민신문 2002.5.6

주택에 대한 불만 이유로서는 노후화(54.3%)와 주택의 협소(25.7%)를 들 수 있다(2004년, 농어촌연구원).

노인들의 주거환경 또한 대부분이 노후화된 불량주택에 살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며, 주택개보수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농어촌주택을 다시 건립해야할 시점에 와 있어서 간접적인 농어촌주택표준도의 수요가 발생하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농어촌표준도를 개발 보급하여 질 좋고 장래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도 공헌할 수 있는 농촌주택 보급에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2 표준설계도서 사용유형 분석

조사대상주택에 사용된 농어촌표준설계도서의 사용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19종류의 농어촌표준설계도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00-29-가 유형이 7명(11.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4-30-나 유형 5명(8.2%), 95-25-C 유형 4명(6.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상대적으로 표준주택의 일부분만을 참조한 조사자 14명(23.0%)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혀 참조하지 않은 조사자도 3명(4.9%)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사례가 표준설계도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형하여 설계하였으나, 표준설계도는 농어촌주민에게는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도면이므로 농어촌주택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대지조건이 표준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건축주가 건립의사가 있을 때, 우선 표준설계도서를 기초로 하역 부지조건, 가족구성원, 개인의 취향에 따라 검토해 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변형시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도면작업 후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건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만족도 분석

조사대상 건물의 평면구성 만족여부는 불만족이 1명(1.6%)이고, 보통이 10명(16.4%), 만족이 29명(47.5%), 매우 만족이 2명(3.3%), 무응답이 19명(31.1%)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주택들은 상대적으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설계 및 허가상 만족여부는 불만족이 5명(8.2%)이고, 보통이 11명(18.0%), 만족이 25명(41.1%), 무응답이 20명(32.8%)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주택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시공과정 만족여부는 불만족이 5명(8.2%)이고, 보통이 9명(14.8%), 만족이 28명(45.9%), 무응답이 19명(31.1%)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주택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건물의 건축비 만족여부는 불만족이 12명(19.7%)이고, 보통이 11명(18.0%), 만족이 18명(29.5%), 매우 만족이 1명(1.6%), 무응답이 19명(31.1%)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주택들은 건축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건축규모 만족여부는 불만족이 2명(11.5%)이고, 보통이 8명(13.1%), 만족이 27명(44.3%), 무응답이 19명(31.1%)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주택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공간 만족여부는 보통이 15명(24.6%), 만족이 27명(44.3%), 무응답이 19명(31.1%)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주택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당구성 중 불만족이 7명(11.5%)이고, 보통이 8명(13.1%), 만족이 27명(44.3%), 무응답이 19명(31.1%)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주택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주택의 구조 만족여부는 보통이 8명(13.1%), 만족이 34명(55.7%), 무응답이 19명(31.1%)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주택들은 상대적으로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설비 만족여부는 불만족이 1명(1.6%)이고, 보통이 11명(18.0%), 만족이 30명(49.2%), 무응답이 19명(31.1%)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주택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마감재료 만족여부는 보통이 6명(9.8%), 만족이 36명(59.0%), 무응답이 19명(31.1%)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주택들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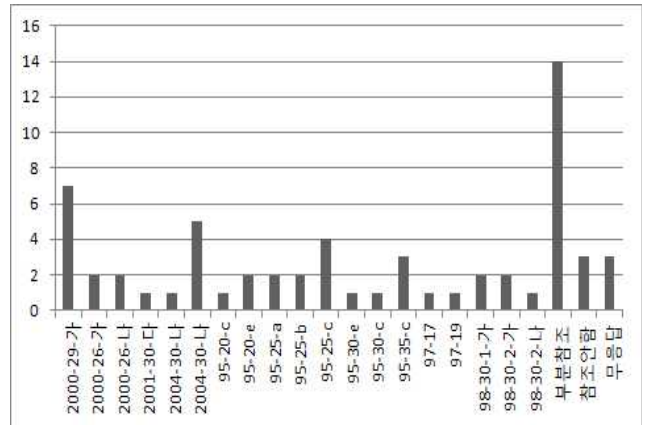


그림 16 사용된 농어촌 주택표준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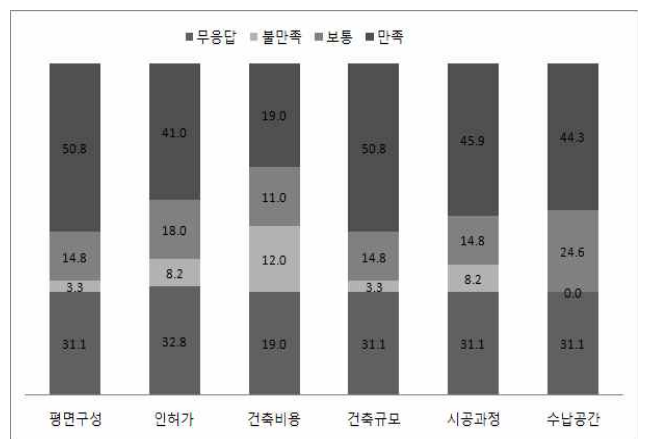


그림 17 조사대상 주택의 만족도

4. 결론

본 연구 결과로 농어촌주택의 일반적인 건축특성과 주민들의 주택수요의식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 우선 농어촌주택 주민 특성으로서 가족구성원은 반 이상이 독거노인이나 노부부이다. 농어촌주택 건축동기는 오랫동안 농어촌에 거주했던 주민이 건물노후에 따른 신축건물을 짓는 경우가 반 이상 되었다.

건축부지는 300㎡~600㎡의 가구가 45.9%정도 차지하였으며, 건축면적은 91㎡~110㎡의 가구가 54.1%정도로 차지하였다. 건축구조는 조적조가 많았으며, 난방방식은 기름보일러가 52.5%였다. 상하수도에 있어서는 시수(41.0%)가 지하수(34.4%)보다 더 많았고, 개별정화조(63.9%)가 오수정화시설보다 많았다.

총공사비와 유지비에 있어서는 68.8%의 가구가 1억이내 비용이 소요되었고, 한 달 유지비는 54.2%가 30만원이하로 지출하고 있었다.

농어촌표준설계도서 중 사용유형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61명 중 전체 19종류의 농어촌표준설계도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지 않은 사례가 표준설계도서 그대로

로 건립된 건물은 거의 없었으나, 표준설계도는 농어촌주민에게는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도면이므로 농어촌주택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가족구성에 따른 평면위주의 표준설계도에서 벗어나서 농어촌실정에 맞는 현대적 설비와 건축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표준설계도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이을규, 장택주, 주우일, 농어촌공사,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실태 연구, 2010
2. 이정진/조성호/송병화, 농촌마을 주택대문 경관유형분류에 따른 경관특성분석;충남 청양군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계획, 제14권 제1호 통권38호, (2008년 3월), pp.33-41
3. 박윤희 외. 1998. 가변성을 수용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모델 개발 연구, 농어촌연구원
4. 박윤희 외. 2003. 농촌 경관주택 정책 및 마을 리모델링 방안 연구, 농림부·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5. 농림부: 농촌 경관주택 정책 및 마을 리모델링 방안연구, 농어촌연구원, 2003,